

연중 제18주일

기도서 P. 405 B해

제1독서(출애 16,2-4. 12-15)
제2독서(에페 4,17. 20-24)
복음(요한 6,24-35)

숨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빵, 빵, 빵

왕 수 해 신부

빵! 개나 사람이나 사족을 못쓰게 하는 말입니다. 개는 빵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꼬리를 치고 침을 흘려가며 쫓아다니고, 사람은 빵을 가진 자에게 간, 쓸개까지 다 주어버리며 양심도 체면도 없이 전전긍긍 하는 수가 많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모를 정도로 빵과 사람은 하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빵을 생명의 빵과 부패할 빵으로 구분하시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 빵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먹어보아야 결국 죽을 부패할 빵보다는 넘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빵을 선택하라고 타이르십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의 빵이란 하느님이 주신 것이며, 바로 당신 자신이라 하시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삶의 길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부패할 빵을 들고 한편에서는 생명의 빵을 들고 서로가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편에서는 "잘 살아보세! 좋아졌네!" 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잘 살아보기 위해 그대신 입다물고 복종하며 여자하면 손발을 묶을테니 꺾적말라고 울러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참 생명을 얻기 위해, 또 진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6. 24)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판국에 우리는 누구에게 굶릴 것인가? 부패할 빵을 앞세워 나가는 자에게 굶질까, 생명의 빵을 지니신 분에게 나아갈까? 악마에게 경배할까, 하느님만을 섬길까? (마태오 4. 1-11절) 누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인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 십자가에 처칠하게 숨지신 그리스도이신가?

이때 소리 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나자렛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이시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저분만이 생명의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을 나의 영도자로 나의 입금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영도력에 토틀 못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때 참 평화와 생명이 있습니다"고

이 사람들은 터지도록 맞으면서도 말하고 질질 끌려 가면서도 목청을 들우고 발길로 채이면서도 울부짖는 오늘날의 선구자 들입니다. 정의구현을 외치는 사제, 민주회복을 부르짖는 인사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을 영도자로 모시고 소리높여 외치는 정의의 투사들의 목소리를 새겨 들읍시다. TV의 "위대한 영도자 말씀중에서"보다 성서의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마태오 5. 10절) 하신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지 않은한 이 목소리는 영원히 우리들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꼭 승리하실 것입니다.

"써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요한 6장27, 35절).

(장수본당 주임신부)



우리의 결의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갇은 비난을 받을때에 여러분은 행복합니다"(마태복음 5:10-11) 하는 우리의 스승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정의 구현을 소명으로 삼고있는 우리는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현 정치체제의 부당성과 정권의 안전장치인 긴급조치의 해제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문정현 신부에 대한 형 집행정지 취소 및 재수감 사건과 안동교구 농민회원 납치, 폭행사건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일인체제의 권력에 의하여 이나라 국민의 정당한 인권이 짓밟히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우리 사제단은 아래와 같이 기본태도와 결의를 분명히 밝힌다.

아 래

1. 우리는 유신헌법과 그 체제가 부당하다고 확신하기에 참된 민주주의적 헌법개정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민경제의 종속성장과 특권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 파탄으로 노동자, 농민등 서민대중의 생활을 극도로 위협하는 경제실책의 과감한 시정과 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진정한 종화안보를 위해 양심수인 및 억압받는 민주인사들의 무조건 석방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시국에 대한 7. 17 사제단 견해 및 한국 정의평화 위원회 백서를 적극 지지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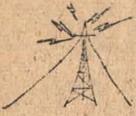
1979. 7. 28.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일동

숨 정 이 산 책



기
름
붓
기



□ 문신부 재 수감을 계기로 본

교구 정의 평화위원회의 활동과 그 대책

김 병 희 신 부

1. 교회 공식 기구로서의 정평위(조직 근거)

교황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1967. 3. 26)과 한국 주교단 「메시지」(75. 2. 28)에 의거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직속 기구로 재출발 한것은 1975년 12월 10일. 이에 따라 본 교구에서도 76년 7월 7일 즉시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를 발족시켰고, 1979. 2. 20일자로 규약 개정과 함께 다시 새 위원회를 결성, 주교님의 인준하에 공식기구로 재 출범을 보게됐다.

2. 정평위의 목적과 방향(기본규약)

본회는 「복음을 토대로 하여 현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여야 하는 하느님 백성의 시대적 사명감을 자각시키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함」을 목적(규약 3조)으로 삼고, 이 목적에 찬동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서 교구장의 위촉을 받아 교회의 정신과 가르침에 준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교구 위원회 활동경과(보고)

「부정부패, 사회부조리, 인권유린등을 고발하는 교회의 발언권 행사」와 「정치 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국리 민복과 고통받는 민중의 권익수호를 위해 그동안 본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는 수집차에 걸친 기도회와 강연회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사명 의식을 고취하며 당국의 자성과 시정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특별히 교구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의 일 장 이었던 7·6사태의 해결과 노풍피해를 중심으로한 슬한 농민피해의 보상 및 인권 수호 활동 전개를 목표로 매월 회합을 갖고 지속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각 본당의 농민회 조직 및 교육, 노풍 피해조사 착수와 피해보상 촉구대회 개최(임실, 고산), 인권강연회 및 김지하 문학의 밤 주관(월명동, 정읍, 김제, 진동, 함열), 노동자와 농촌문제 세미나 그리고 전국 규모의 정의평화를 위한 성직자·수도자 세미나(7. 16-17)등을 실 새없이 실시하면서 우리의 주장울 관철시키고,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난하고 억눌린 형제들의 보호, 의식계발, 일치단결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미흡하긴 했지만 7·6사태의 원만한 타결, 그리고 임실·고산·수류·원평지역에 적으나마 1,500여 만원의 보상 분배를 안겨줄 수 있었고, 특히 신부님들의

관심 배가와 일치, 그리고 거 교구적인 사제들의 단합과 새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새 계기까지 조금은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4. 정평에 대한 탄압(사건 발발)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민주·인권·정의에 「노이로제」가 된 당국은 왜 “망할 정조”인지 사사건건 우리의 이 선의의 활동과 의로운 행사를 끈질기게 방해하고 협박, 위협 조사를 해왔다. 그리고 끝내는 구속, 투옥의 지경에까지 몰고 왔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다 들어난 죄상의 폭로가 두려워 입을 막으려는건가? 마치 6·25때 성직자 납치, 투옥을 다시 보는것만 같아 그 정체가 심히 의심스럽다. 종교탄압과 말살 정책은 곧 “공산당 것” 아니던가?! 주권자인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며 국민에 의하지 아니한 그러한 정권은 이미 민주정부 아닌 공산 정권이기에 쉽다. 아찔하다.

각처에서 자행되는 노동자, 농민의 연행·협박·고문 구속사태등 오늘의 참담한 현실이 마냥 우리를 통분케 한다. 더우기 금번 문 정현 신부(본 위원회 인권분과 위원장)의 수감은 결코 어느 한 개인 신부에 대한 탄압이라고 단 볼 수 없다. 그를 인정한 사제단과 주교단 그리고 교황청에 대한 도전이요, 전 교회에 대한 탄압의 적신호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 일어나 쫓겨하고 정의(正義)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5. 우리의 태도(정평 대책)

우리는 세인(世人)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 형을 받고 죽은 그리스도,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 직언(直言)을 하다가 목을 베인 선구자 요한(세자)의 의기를 숭상한다. 또한 수 많은 순교 신인들의 빛나는 신앙의 발자취, 그 증거 생활들을 모범으로 삼는다. 오직 생명을 얻기위해 죽음을, 좋은 결실을 얻기위해 한 톨 썩어가는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그를 위해 죽어갈 수 많은 사자(使者)를 처럼.

우리는 어떠한 폭력과 탄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활동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아니 더욱 더 뚝뚝하고 뚜렷하게, 더욱 더 힘차고 당당하게 보다 치밀하고 계획성있는 대책을 꾸려 차근차근 밀고 나아갈 것이다.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 부풀고 무성히 것될 때까지...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적극 참여를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다.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회장〉
(정평위 백서 금주 쉽니다.)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한 등 암 (모이세)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락은행 3·4층 ☎ 5943·8629

이라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교구소식>

문정현 신부 재 구속, 흥성 교도소에 수감

지난 76년 3.1절 명동 기도회 사건으로 「사실왜곡」이란 죄명을 쓰고 3년형을 선고받
아 어처구니 없게도 1년8개월 동안 옥고를 치루다 출감했던 문정현(발도로베오) 신부님
이 다시 지난 7월26일 「형 집행 정지 취소」 결정으로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동안 이곳 저곳에서 행한 인권강연과 유신헌법 및 체제 부인, 비방등이 물썬도 거
슬렸던 모양? 소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잔형(1년2개월)을 치루도록 그만
다시 투옥시켰다. 남들처럼 영리하게(?) 에두르지 못하고 바로 말하고 좀더 엇대지 못
한 그 강직(強直)이 끝내 또 우릴 대신해 수난을 당하나 보다. 아~, 불쌍한지교 뺨같
이 지혜로운 우리네 안이여...

가슴을 치자. 보속을 하자. 그리고 힘을 모으자!

□ 긴급 사제총회 - 「비장한 결의」 다져

복음사명을 앞세우고 함께 활동하던 동료사제의 수감 소식은 삼시간에 퍼졌다. 출타
중인 두 세분을 제하고는 거의 모든 신부가 즉시 모여 바쁜 일정에도 제반사 하고 27·
28일 하룻 밤 이틀 낮을 교박 숙직이며 기도하고 숙의했다.

바야흐로 「때」가 온 것인가? 심각하고 신중한 대처를 몇 번씩이나 다짐하며 순교회생
의 대열을 점점까지 했다. 그리고 제1단계, 2단계, 3단계... 조심스레 대책을 하나씩 하
나씩 세워 나아갔다. 주교님도 원로 신부님도 잦은 세 신부님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대사(大事)를 위해.

그리고는, 결코 말 만의 성명(聲明)일 수 없는 진정한 우리의 다짐, 모두가 똑같이
결머지고 투신할 「비장한 결의문」을 성안, 우리 교구 사제단의 참 뜻을 대 내외 모든이
에 확고히 밝힐 것을 서약했다.

전 교우, 모든 형제·자매들의 진지한 성원과 기도를 빌어 마지 않는다.

(결의문 1년 참조)

□ 교구 정평위·평협·수녀연합회 임시총회 개최

사제단의 결의와 행동을 뒷받침하고 시국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를 새로히 정립하기
위해 교구단위 제 단체도 즉각 대응, 각기 총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숙의키로 했다. 전
회원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란다.

정평위 : 7월 29일 오후 3시(주교관 회의실)

평 협 : 8월 4일 오후 2시(가톨릭센터 회의실)

수녀연합회 : 8월 6일 오후 2시(성체회 본원)

요십이 (314) 김병오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배
칼라필립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시내버스 승차장)

시주 유교업 중이 시장후

(전화 ③ 4577, 5789)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재
냉난방막트·합성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주 광고·공업사

대표 이기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MC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대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번
유·울리어나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 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 옆)

전화 ② 6219

글·문·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받지거)

☎ 2-3301 (자택 2-8548)

※ 교우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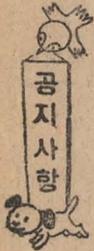
세운식당

전화 ② 8530

군산시 신창동 신생그릴 앞

황베르니카(기록)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농촌 부녀지도자 연수회...8월 10일<금> 오후 2시~12일<일> 오후 1시, 가톨릭센터에서, ※ 8월 5일까지 신청 바람. 교구청내 농민회 전북연합회 사무실-
2. 신앙대학 강좌...8월 13일<월>~16일<목>, 대전 가톨릭 교육회관에서 주제: 교회사와 현대의 복음전교, 대상-남여 교우 100명, 수강료-16,000원(숙식)
3. 전주교구 여자수도회 연합회 긴급 임시총회 소집...8월 6일<월> 오후 3시 장소: 노송동 성제회 수녀원(본원), 지참물: 공동체 성가집
4. 전국 가톨릭 대학생 성지순례...8월 9일~13일, 충북 진천군 배티마을 참가비: 3,000원, 전주교구 예비모임: 8월 6일 오전 10시(덕진 가톨릭회관) ※ 참가자는 예비모임 꼭 참석 바랍니다

◇ 교구밖 소식 ◇

◇ 안동교구: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이사 오원춘 형제가 지난 5월 모 기관에 15일간 납치, 폭행을 당하고 나왔다다시 끌려 갔다. 그리고 조사를 빙자, 다시 강제로 오형제와 권종대(농민회 연합회장), 정재돈(농민회 연합회 총무이사, 농민 사무부장) 형제를 연행하고, 지난 7월 27일에는 30여명의 경찰이 교구청에 난입, 불법 수색 소동을 벌이고 사무국장 정호경 신부님을 연행한 데 참가가 빚어졌다. 안동교구에선 8월 6일 밤 8시 주교좌 성당에서 전국 기도회를 개최하고 이를 성토했을 예정이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광주교구: 전남 장진군 도암면 김구식(농민회 이사) 형제가 하곡수매시 면직원과 시비끝에 소위 「공무집행 방해」 명목으로 7월 26일 경찰에 연행 구속됐다. 교구 정평위원회가 엄중 항의중이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정복
보좌 신부 이복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상지회: 5일<일> 오전 10시
 2. 프란치스코 3회: 5일<일> 오후 1시30분
 3. 애령회: 6일<월> 오전 9시
 4. 주일학교 여름 특별교리: 6일<월>~11일<토> 시간-오전 9시~12시
 5. 성모승천 성가연습: 8일<수>부터
 6. 영세자들은 신심단체에 가입하세요
 7.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26,90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사도회 주일: 10시미사 후
 2. 하계 특별교리 주일학교-6일~11일, 오전 9시~12시 중·고등학생-7일~11일, 오후 5시~6시
 3. 수요기도회: 8일 8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87,56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김성복

1. 첫 영성체 준비교리: 오늘부터 교리를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감사합니다: 이엘리사벳(성순)씨께서 신부님 침대 1점(124,000원)을 희사함
- 지난주 봉헌금: 97,230원

(순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누깰다 부녀회 월례회: 8월 4일
 3. 주일학교 교리반 하기방학 중이라도 토요일 어린이 미사는 계속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주일학교 어린이 자모회 월례회: 8월 7일 오후 2시
 5. 여성 꾸르실로 수장 희망하시는분 8월 6일~9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6. 지난주 신축기금 납부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익명-170,000원, 전북동 신중남-10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50,14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종제
사도 회장 서석기

1. 주일학교 특별교리: 8월 6일~11일까지
2. 첫 영세반·첫 고해반 교리: 오전 9시부터
3. 영화상영: 실계 오는 10일 저녁 8시 많은 교우분들 참석 바랍니다
4. 부녀회·성모회 야유회: 8월 오전 9시30분 본당 출발 장소-관촌 사진대
5. 김익수(마리아) 할머니 선종: 7월 31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6. 주일학교 1일교장: 부녀회 회원일등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기석
보좌 신부 유성종
사도 회장 김기석

1. 사도회: 10시미사 후
 2. 유아세례: 오전 8시반 미사후
 3.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6일~11일까지
 4. 경노잔치: 60세이상(15일 예정) 오전 8시반~12시
 5. 선종기 회사 감사합니다 유종현, 박도식, 장준수, 유경옥, 양한승, 문혜준, 장애자, 송재진
- 지난주 봉헌금: 300,50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김종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주일학교 하계특별교리: 6일~11일, 오전 9시~12시
 4. 부녀회 월례회: 8월 8일<수>, 고덕산장 입구 하천(각시바위 상단) 부녀회원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성당으로 모이세요
 5. 학생회 하기수련회 협조와 수고에 감사합니다
 6.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히메레사씨 지도, 매주<화>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지도
 7. 환등기 상영: 매주 공식미사 후
 8. 봉헌금 미수는 없는지? 미수가 있으면 속히 완납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1,676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 수감중인 본당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정성을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1. 본당 여름 성경학교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사도회: 금일 저녁미사 후
 3. 성령기도회: 매주<수> 저녁 8시
 4. 본당 살림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무금에 좀더 성의를 가집시다
- 지난주 봉헌금: 56,780원

짓밟힌 농민 짓밟힌 교회

가톨릭 농민회원〔오원춘〕 납치, 폭행, 구속, 허위조작사건 전모

천 주 교 전 주 교 구 사 계 단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
천 주 교 전 주 교 구 수 녀 연 합 회



우리의 진실을 밝히며

우리는 現今 우리나라의 소위「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변칙적 체제(體制)안에서 어느 정당도, 언론기관도, 이 나라의 민족번영을 갈망하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있는 이 싯점에 사적인 영달을 떠나서 「잘 못 되어진 것」과 「잘 못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위정자와 백성에게 충언(忠言)을 말해야 하는 책임을 통감한다.

당국에서 말하는 「오원춘 사건」이 단순한 형사적 사건이라면 지나친 과잉 반응으로 社會的 차원으로 비화시킨 저의는 틀림없이 教會와 그 活動을 봉쇄내지 억압하려는 뜻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教會는 진실을 알리고 깃뚫힌 人權과 教權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뜨거운 충정이 무시되고 더하여 소외되어 아픔을 당하는 이들의 소리를 하나로 묶어 세상에 알리는 바이다.

1. 짓밟히는 농민운동

가톨릭 농민회 임원 납치 폭행 사건 전모

지난 5월 5일 가톨릭 농민회 안동 교구 연합회 이사 오원춘(알퐁소 :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 분회장)형제가 모 기관원에게 폭력적으로 납치되어 생사조차 알지못해 애타우던 중 보름이 지난 5월 21일에야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로 돌아왔다. 이는 그동안 한국 가톨릭 농민회에 대해 “용공성” 운운하며 불온시하는 모함과, 작년 4월 춘천연합회 회장단과 본부 직원 구속사태, 각처에서의 집회및 활동 방해, 금년 4월 세칭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연관지워 각처에서 일어난 농민회 회원 및 간부들의 불법연행 신문, 가택수색등에 이어,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납치와 폭행등 비인도적인 악랄한 행위가 탄압의 새로운 수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늘도 한톨의 식량 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력은 불별 더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농약오염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땀과 어지러움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값진 노동에서 인간됨을 빼앗아 가는 구조적 장벽 때문이다.

농촌을 떠난 자식들에게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의 굴레를 씌우기 위한 저극가 정책과 고질적인 적자 영농, 일손부족, 신품종 강제권장, 획일적인 주택계량, 농약강매, 농협 출자 강요, 악덕채벌의 토지투기, 무절제한 농산물 수입, 소비풍조 조장하는 각종 선전과 매스컴 공해등으로 농촌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못살아 농촌을 떠나는 농민은 다시 도시에서 노동문제와 빈민문제를 형성하는 구조적인 악

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피땀으로 국민의 식량과 공업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자주적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농민이 생산자로서의 긍지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시되는 구조속에서는, 농민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유린될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빈부계층간의 위화감이 더욱 심화되어 진정한 국민총화를 저해한다. 따라서 농민운동은 농민의 인간적 지위 향상은 물론 노동문제 등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며, 이땅에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민족적 염원이요, 진실한 국가적 과제로서 시급히 요청되는 일이다.

바로 이러한 필요와 요구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오래전부터 농민의 권익옹호와 인간적 성장을 이루려고 농촌현장에서 땀흘리는 진정한 농민운동 단체이며, 그리스도적 사랑과 정의를 몸으로 실천하려는 우리교회가 농촌사회에 파견한 새로운 “현장교회”인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 농민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조건속에서 정성을 다해 일하던 오원춘형제는 소위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백주에 모 기관 불한당들에게 납치, 폭행을 당하고 수백리 떨어진 바다 건너 먼 울릉도에 15일간이나 내팽개쳐 졌다. 이에 그 만행의 전모를 밝힌다.

(사건 배경)

오원춘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 1동 585번지) 형제는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동해지역 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중 특히 농민회소식지 “파종”에 게재되었던바와 같이 “감자

피해 보상운동"에 앞장섰던, 권력없이 용감하고, 재물없이 슬기롭던 알농사꾼이다.

영양군에서는 "78년 잎담배 후작농 유희농지 활용 극대화 로 농가소득증대"라는 구호아래 가을감자 "시마바라"를 50킬로 1포당 8,000원으로 군내 5개면에 걸쳐 적극 권장했었는데, 종자가 거짓인지, 불량인지 재배농가의 80%이상이 싹도 트지않아 패농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별 보상대책이 없자, 청기분회원이 중심이되어 당국에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78.10.5 "청기 감자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청기면 청기동 정족동 34농가)를 구성, 한달간에 걸쳐 피해 실태 조사를 완료(34농가 총 피해액 780만원)하고, 군수, 군농협장에 피해보상을 두차례 서면 진의했으나 "79년 6월까지 시험장의 종자 감정 결과를 기다려 보라"는 무성의한 답변 (1979 1.9매일 신문 보도)을 하더니 나중에 1월23일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들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등 문제가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바로 피해농민을 우롱하는, 형편없는 대책안을 내세워 "만족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가는 등 각종 방해와 회유속에서도, 오형제는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책임 농정구현을 위해 싸운끝에 농민승리의 사례를 남겼었다.

이런 일을 통해 그곳 농민들은 서로 깊이 만날수 있었고, 자신의 힘을 체험했었다. 그러나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초차 농민이 깨어 일어서는 것을 싫어하는 지배자집단의 하수인들은 이 청기 감자 피해보상 사례가 농민회 소식지(파종, 79. 4)에 게재되어 전국에 알려지게 되자 비접한 음모를 꾸민 것이다.(이 소식지 "파종"을 대전 농민회 본부에서 200부를 인동으로 보냈으나 접수한 것은 180부뿐으로 20부를 도난당했음.

4월 26일 경).

(사건 경위)

1) 납치되기 전 4월 28일, 이웃집 (전화 청구 61번)을 통해 안동에서 “5월 5일 만나러 들어 갈테니 집에 있으라”는 전화 내용을 전해받다. 오원춘 형제는 농민회 안동연합회 전화로 추측함.

2) 그 후 5월 4일 다시 영양에서 같은내용의 전화가 오자, 얼마전부터 영양경찰서 정보과장 모 계장, 오모 형사등이 “오형, 조심하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하던 점과, 청기 지서와 천주교 청기 공소 회장을 통해 오원춘 동태확인 전화가 경찰서에서 계속 왔다는 점, 더우기 5월 1일 영양읍 승격 기념행사장에서 정보과 오모 형사로부터 “5월5일 집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린이날이라 영양 청년회의소 주최”초 중학생 글짓기 대회 “심사관제로 영양에 나와야 한다.”고 답한 적이 있었던 점 등등의 일로 미루어 좀 불안해 졌음.

3) 그렇지만 말은일을 하기위해 5월 5일(이 글짓기 대회가 후에 5월 8일로 연기 되었음)아침 떠날때 부인에게 “혹 무슨 일이 있거든 교구청과 본당에 연락하마”해놓고 청기 정류소에 나가니 지서 순경이 나와 있었지만 별 생각이 없이 영양행 버스를 타고 12시경 버스종점에 내리자, 정체불명의 사나이 두명이 “안동서 연락했던 사람이다” “안동에 함께 가자”하여 연락할 겨를도 없이 검은 세단에 납치되어 오후 2시경 안동 도착, 해동식당에서 점심을 먹고는 교구청에 전화연락 할려고 하니 그들 중 한사람이 쫓아와 전화기를 뺏으며 “내가 먼저 하자”고 어디인가 내용 불상의 전화를 하더니 “시간 없

다, 빨리가자”하면서 다시 세단에 타게 하고 내쳐 포항까지 직행하였다.

4) 시내를 빠져 비포장도로를 지나 포항계철이 가까이 바라보는 곳의 푸른빛이 또는 잿빛건물로 들어갔다. (17:00경)

5) 납치해온 두 사람은 딴 방으로 가고 신사복을 입은 다른 두 젊은사람이 들어와 “왜왔어? 체제에 도전하는 놈은 그냥 놔둘수없다”라고 하기에 “내가 무슨 체제반항을 했느냐?”고 반문하자, “이 촌놈의 새끼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까불고 다녀”등 갖은 욕설을 하며 책상위에 두꺼운 책을 집어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먹과 구둣발, 각목등으로 어깨와 허리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두시간 가량 개패듯 구타하여 수십차례 쓰러지고 짓밟히고 또 맞아서 멍들어 부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부인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잠질때 신음을하고 허리가 몹시 아프며 왼쪽어깨는 내려앉는 듯 아프다고 함)

6) 그곳에서 나올때도 납치했던 두사람이 부축하여 세단차에 올랐는데 그들이 차중에서 말하기를 “밖에나가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 얘기하면 더 큰 곤욕 치를줄 알아라”고 공갈하였고, 울분과 공포에서 비감, 허탈해진 오형제에게 울릉도행 배 매포소 부근 한양여관에서 밤 2시까지 소주를 먹이며 “농민회 임원이 몇명이나? 총무는 누구냐?” 또 함평고구마 피해보상 사례, 청기 감자 피해보상 사례 같은 것등을 자꾸 떠들어 퍼트리면 좋지않다.” “갈 협조해서 등글등글 사는게 현명하다”는 얘기를 하기에 오형제가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려면 그들은 금방 인상이 달라지는 등 협박을 하고는,

7) 5월 5일 아침 오형제가 완강하게 “농사일이 바쁘니 집에 가야겠다”고 나서자 강제로 끌며 울릉도행 “한일호”에 태웠고 남들과는 달리 입검, 몸수색도 하지 않았다. 둘 중 한사

람은 출발 10분전쯤 “오형 수양 잘하고 오시오”하며 내렸고 좀 나이트 사람과 울릉도까지 갔는데 상처 투성이의 오형제에게 돈 5천원을 꺼내 놓고는 화장실 가는것 처럼 사라졌다.

8) 오형제는 태풍으로 연락도 두절되었고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하고싶어도 할수 없도록 멀리서 감시하였고 몇차례 탈출을 기도했으나 그때마다 부룻기에만 가면 나타나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싶어서 있는게 아니다” “독도에 가자”하여 죽음과 같은 불안과 공포에서 꼼짝도 못하도록 하였다.

9) 이후도 오형제는 돈도 떨어져 절대가 없어 상여를 넣어두는 헛간에서도 잤고, 배고프면 식당의 일도 도와주면서 얻어먹었다. 더러워진 옷차림으로 벗어나간 사람처럼 인적없는 절벽에 앉아 있기도 했다.

10) 5월 18일 부룻가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때 공포와 불안이 겹친끝에 실의에 빠진것 같이 보였던지 “많이 달라졌다. 어깨를 두들기며 “농사일이 바빠데니 내일 돌아가자”했다.

11) 5월 19일 아침 “한일호”를 타고 포항에 도착, “집에서 일이나 잘 하시오, 얼마간 집에 있는것이 좋을거요” 하고 끝까지 위협을 받고 영덕을 거쳐 영양으로 왔다.

12) 5월 21일 영양에 도착하자마자 성당에 가다가 정보과 오모형사를 만났을 때 어디갔다오냐고 물어 오형제가 “몰라서 묻느냐?”고 하자 “난 너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안다 안동 아니면 영덕 있었지”했다. 그래서 울릉도에 갔었다고만 얘기했다.

13) 집에서 밀린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그 후 매일 지서에서 별일도 없이 “일 많지요?” “안동에는 언제가느냐”는 등 핑계를 삼아 찾아왔고, 경찰서에서, 지서에서 청기 천주교 회장댁으로 오원춘 동태확인 전화가 계속 왔기에 압박을 느꼈

고 바쁘기도 하여 집에 있었음.

14) 6월 13일 오형제가 지난일을 얘기하려고 영양 본당 신부님께 처음으로 나간사이에 낮에 지사에서 1명이 왔다 갖고 밤에 귀가하자 초상집에 가자는 핑계로 또 3명이 다녀 갔기에 가족들 까지 불안해 했다.

15) 6월 17일 걱정하시던 정희옥 본당 신부님께서 이 오원춘 사건을 영양 경찰서 정보과장(신자 에게 얘기하고 밝혀달라고 하니, 정보과장은 (사건후 오형제를 만난 일이 없는데도) "개인적인 일로 울릉도에 갔던 모양"이라고 일축해 버렸으며 그 후에도 전혀 조사에 적극성을 띄고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법의 질서와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라면 이와같이 백주에 사람을 납치, 폭행, 장기간 유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파렴치한 인권유린이요, 하느님께 대한 엄청난 모독이며, 세상 모든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닌가! 또한 취약한 농촌현장에서 농민을 민주시민, 자주적 농민으로 길러 다함께 살려는 농촌 복음화에 앞장선 가톨릭 농민회를 밑둥에서부터 잘라버리려는 악랄한 탄압이며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말살하려는 계획적인 음모로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민중 구원을 소명으로 구조악에 항거하는 종교에 대한 전면 탄압의 조짐임을 확인하고, 이를 하느님의 정의와 분노를 믿는 모든 종교인과 민주 시민에게 고발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1979년 7월 17일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한국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 단

2. 짓밟힌 농민

(오원춘 납치 폭행 사건 이후 경과 보고)

1) 경북 영양군 청기면 가을 감자 피해보상 해결에 앞장섰던 가톨릭 농민회 동해지역 이사 오원춘(알퐁소)형제의 울릉도 납치 폭행 사건(5월 5일—5월 21일)대책위원 신부들은 먼저 오원춘 형제를 교구 본부에 기거하도록 주선하고 (7월 15일), 전주 정평위원회 주최 신부들의 세미나에서 (7월 17일) 사건 전모를 보고함.

2) 7월 19일 중앙정보부 안동 출장소 소장 박갑규, 안동 경찰서장 총경 김희수, 동서 정보과장 경감 구종태씨로부터 수사협조를 위한 첫 면담이 농민회 지도신부 (사목국장)정호경 신부에게 요청되었음 정호경 신부는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관업무임을 알렸으나 그날오후 농민회 지도신부로서 면담에 응해주기를 요청함.

3) 20일 오전 11시, 경북도경 정보 1과장, 중앙정보부 안동 출장소장, 대구 중정 간부, 영양 경찰서장, 영양 천주교회 청기공소 회장은 수사협조를 위한 오원춘 과의 첫 면담이 교구 본부에서 신부 4명이 (김옥태, 정호경, 이춘우, 오성백 신부)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짐.

그러나 피해자 오원춘 본인의 진술도 있기전 “조사결과 설명”운운하자 신부들은 피해자 진술도 듣기전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먼저 피해자 진술부터 듣자고 이의를 제기함.

수사관들은 현장수사를 위한것이라며 오원춘을 대동하려 하기에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라기 보다는 이미 오원춘을 범

인으로 단정하고 수사가 시작 되었다는 인상이 짙어 신부1인
을 동행시키기로 하고 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류강하 신부를
선정함.

4) 7월 21일(토) 류강하 신부는 당일에 (21일) 귀가 할 것
을 약속하고 오원춘 형제와 포항까지 다녀오기로 하고 수사
진과 교구본부를 출발 동행함

류강하 신부가 포항에 가는동안 도경 정보 제1과장은 “이
사건은 류강하 신부와 오원춘 협작”이란 말을 두번이나 되풀
이 하기에, 이미 각본에 의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협조의
의미가 없다고 놀라운 표현을 하였고 포항 한양여관에서, 이
사건은 “오원춘 조작”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듯한 수사가
록 내용을 보여주기에 이미 각본 수사임이 확인 되었음.

5) 오후 2시경 울릉도행 승선장 현장 검증차 부두 대합실
에 하차 하자, 현장검증은 하지않고 돌연 울릉도행 한일호에
승선할 것을 강요함.

신부의 주일미사 관제상 토요일 울릉도행에 응할 수 없고
교구 본부에서의 약속도 그렇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월요일
에 가자고 제의했으나 사북 경찰관들의 강제 연행이 시작 되
었음 (사북경찰관7-8명, 정북경찰관6-7명) 류신부는 오원
춘을 꺼안고 도로에서 버티고 발버둥을 쳤으나 “포항 천주교
회에 알려주소”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오원춘형제는 류강
하 신부로부터 떨어져 승선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승
선대에 끌려올라가자 배는 즉시 부두를 떠남. (녹음보존)

6) 오원춘형제와 떨어진 류강하 신부는 즉시 이 사실을 교
구장에게 보고하였고 교구장은 안동경찰서 서장 김희수를 통
하여 도경국장에게 수사협조를 위한 포항까지의 동행이 갑자
기 울릉도의 강제 연행이 됐음은 납치범을 잡기 위한다는 수

사가 납치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에 이후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항의함.

7) 23일 도경국장이 교구장을 방문하여 오원춘이가 울릉도에 간 것은 자의 여행이었으며 피한에 의해 당한 지난 5월 폭행도 거짓이었다는 오원춘의 자백(?)내용과 함께 울릉도 본당신부에게도 오원춘이가 솔직히 고백성사를 보았다고 통고함 (울릉도 본당신부는 “오원춘이가 허위 사실임을 신부에게 솔직히 고백했다는 확인서 서명을 경찰관들에게 요청받았으나 고백의 성사를 수사에 이용하려는 상식밖의 일을 당신들은 꾸미고 있다고 흥분하여 일축했음을 김재문 신부가 전화로 확인함)

8) 24일(화) 대책위원 신부들은 안동경찰서 서장실에서 경찰관 입회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책위원 신부들이 오원춘과 만날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경국장의 약속이 있었다는 교구장의 통보를 받고 11시에 경찰서를 방문함.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수사관들이 퇴장을 거부하여 40여분동안 언쟁하면서 (녹음보존) 자유스러운 면담의 불가능을 보고하고 교구장에게 차선책으로 신부들과의 면담이 의심스러우면 주교님과 오원춘과의 단독 면담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음.

이에 도경 정보 제1과장은 신부퇴장후 10분후라면 허락될수 있다고 대답, 이에 10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사를 위한다면서 4일간이나 감금시키고 있는 상황에 또 무슨 시간이 필요한가? 허위 자백인정을 위한 마지막 장요에 필요한 시간인가? 하며 항의하고 있는중 전화를 받은 교구장이 서장실에 들어옴.

교구장은 수사관 입회없이 자유롭게 오원춘과의 면담이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

할 수 밖에 없지않는가 라는 말씀을 하고 퇴장하자 항의하던 신부들도 이어 퇴장함.

9) 사제단은 짓밟히는 가톨릭 농민회 간부에 관한 일련의 사태는 개인차원을 넘은 교회의 사목활동이 짓밟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권수호를 위해 사제전신을 투신 할 것을 결의함.

10) 25일 19 30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장 권종대 동회 총무 정재돈이 예천본당 관할 대죽공소에서 농민사목 교육중 사복경찰관 6명에 의해 강제 연행됨.

11) 27일 사제단은 다시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거듭되는 가톨릭 농민회 간부의 강제 연행에 대한 항의구호(오원춘, 권종대, 정재돈을 즉각 석방하라. 범죄집단 색출하라. 날조수사 중단하라)를 교구청사에 부착함.

12) 27일 13시 30분(모인 신부들이 귀가직후) 안동 경찰서 정보과장 경감 구종태의 지휘아래 약30명의 사복 경찰관들이 교구 본부에 난입하여 이유도 설명도 없이 사목국장 겸 농민회 지도신부인 정호경 신부를 강제연행하고 구호내용물을 강제 철거시킴. (교구장은 난입현장을 촬영)

13) 28일부터 경찰은 안동교구 관내 각지에서 "오원춘 납치 폭행"사건은 허위 조작이었음이 본인 오원춘에 의해 자백되었음을 유지 신자들에게 설득하는데 안간힘을 씀.

14) 이에 사제단은 "진실을 알리자" '알리는 길만이 진실을 밝히는 길이다'고 합의하고 순회하며 정기 기도회를 열기로 함.

7월 30일 오후 경찰관들의 교구청 난입사건, 오원춘, 권종대, 정재돈, 정호경신부의 강제 연행 불법 감금에 대한 교구장의 항의문이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발송 되었고 밤

8시 30분 안동 주교좌 성당에서 열린 제1차 특별기도회중에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기도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음.

(79. 7. 31 작성)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천 주 교 안 동 교 구 사 제 단

3. 우리는 알고 있다 거짓을!

경찰은 오원춘 피납 폭행 사건이 단지 오원춘 자신의 조작이었다는 것을 교우뿐 아니라 지방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데 안간힘을 쓰고있다.

과연 시골의 한 농부가 이 엄청난 사실을 무서운 기관을 압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조작할 수 있을까? 현장검증 납치경험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원리적 순서와 납치과정을 생생하게 어긋거림도 없이 재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원춘의 양심선언을 믿으며 우선몇가지 생각해본다.

1. 피해자 현장조사 이전에 이미 수사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언한 점.

2. 수사협조를 요청한 수사관이 피해자를 (입회인 류강하 신부와 강제 격리해 놓은채) 납치 감금한 후 자백을 받았다고 통고한 점. (울릉도에서)

3. 대책 위원신부들이 오원춘을 수사관 입회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만나 울릉도 재납치 이후 경과에 대해 알아보게저한 교구장의 요청에 응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점.

4. 주교님과 오원춘과의 단독 면담을 차선의 안으로 제안한 대책위원 신부들의 요청에 수사관은 대책위원 신부들이 퇴장 후 수사관이 잔류한채 10분이 경과한 후에야 할 수 있다고 한 점.

5. 수사관은 범인수사 종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본당 유지 신자들에게 "동 납치 사건은 오원춘의 개인 조작"이라고 하며 설득에 애쓴점.

6. 오원춘 납치 폭행 사건 이후 대책위원에게 진술한 증인

들이 수사기관에 출두한 후 부터는, 두려움 가운데 처음 진술 내용을 번의할 뿐 아니라 재 면담을 기피 한다는 점.

7. 울릉도 재 납치중 그곳 본당 신부에게 경찰관이 소위 자백(?)내용을 고백성사중에 고백한 것처럼 확인서를 받아 고백성사까지 수사에 이용하려고 한점.

8 한일호 승선자 명단 기입 및 검문, 검색은 승선 절차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칙인바 납치범의 이름이 승선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봐 (납치범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양) 납치 사실이 아니라는 수사관의 강력한 주장에 반해서, 재납치시에도 오원춘과 류강하 신부에게 신분증 제시는 교사하고 관할 경찰관의 협조하에 한일호 승선대까지 강제로 끌고간 점.

9. 오원춘 납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들추어 내고 또 패륜아로 몰아 강조한 점.

10 서울에 보고된 내용중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달리 전해지고 있는 점

(김수환 추기경 말씀중에서 확인 됨)

—(오원춘 본인과 증인에게 또 다시 고통이 가해질 수 있는 자료외에는 다음호에 계속 할 것임)—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

4. 양심선언

—오원춘이 잡혀가기전에 직접썼음—

본인은 가톨릭 신자로서 소명을 다하여 농촌 사회에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76년 12월부터 가톨릭 농민회 운동을 시작하여 이웃 농민들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애써 오던중 79. 5. 5일 영양 버스 정류장에서 정체불명의 두 사나이로 부터 납치당하여 안동을 거쳐 포항 모 건물 (포항제철 부근 갯빛 건물)안에서 이유도 모를 폭행을 당하고 (체제에 반항하는 놈은 그냥 틀 수 없다며 폭행하였음) 울릉도 까지 15일동안 강제 격리된 상태에서 불안한 날들을 보낸 사실이 있어 이를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구성한 조사단과, 농민회 조사단, 본당 신부님께 하느님께 받은 양심에 의하여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차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실"이며, 만약 반복된다면 이는 외부적 압력이나 위협에 의한 강제적 결과일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농민들과 함께 일하려는 나의 동료 형제들에게 또다시 쏟아질지도 모르는 이런 폭력과 압력 밑에서

주여 / 작은 저희들을 지켜 주소서.

영양 천주교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아래서

1979. 7. 5.

오 원 춘

5 우리의 결의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원 납치, 폭행사건에 대한—

1. 우리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요한 8, 33) 증거하기 위해 스스로 남김없이 바치신 그리스도를(요한 18, 37) 죽기까지 따르고자 한다.

2. 우리는, 오랜 세월 구조악으로 병들어 온 농민 형제들이 진리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 하느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로마8, 30) 누리는데 인간 구원의 길임을 확인한다.

3. 우리는, 거짓과 탐욕에 얽매어 자기 혼자만이 잘 살려는 세대에 저항하여 진실과 정의로 함께 살고자 앞장서는 가톨릭 농민회가 농민 구원을 선포하는 농촌의 현장교회임을 확신한다.

4. 우리는, 오원춘(알퐁소)형제의 납치, 폭행, 울릉도 유기사건이 농민사목활동을 짓밟기 시작한 음흉한 종교탄압이라 본다

5. 우리는, 당국의 이른바 조사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처사에 심한 분노를 느끼며, 피해자인 오원춘형제를 조작 범인으로 몰려는 수사자세를 믿지 않는다.

6. 우리는, 이른바 조사를 빙자하여 재납치된 오원춘형제와 권종대(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장) 및 정재돈형제(안동교구 사목국 농민사목부장,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총무이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7. 우리는, 이 사건을 농민구원에 몸바쳐야 할 안동교구의 사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양심과 복음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후까지 투신 할 것이다.

1979년 7월 26일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

6. 김수환 추기경 강론(초록)

(다음은 안동교구 사택에 대해 지난 8월 6일 안동교구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미사를 주례하셨던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을 간단요약한 내용이다.)

“경찰이다 정보기관이다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수있다.”

“피의자 같으면 마음대로 다루어도 좋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생각을 오늘날 우리 경찰들이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경찰이나 기관원이 되면,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을 아무리 알보아도 관계없다 이것은 바로 국민총화를 그대로 짓밟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경찰이 있는한 우리는 국민총화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 총화를, 한국안보자체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무서운 위협스러운 행위입니다.

이와같은 관념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시간까지 겪어온 그 많은 인권유린사체를 낳게한 것입니다. 바로 이같은 관념 이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오원춘 형제의 납치사건이 사실상 있게 되었고 또 이 납치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그 사람에게 그 본인에게 자신이 조작한것 처럼 자백하도록 만드는 그런 극심한 인권유린이 있게된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이점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오랜 박해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때도 있었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도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국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대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박해를 당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
나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 하
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원춘 형제와 같
이 큰 시련을 겪고 죽음앞에 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둠과
싸워 이긴자만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국민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도대체 문제
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봅시다. 왜 오늘의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근로자나 농민을 비롯해서 국민대중의 의식화를,
자가 기본권에 대한 의식화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까? 어찌
서 국민이 권력앞에서 아무말 하지말고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우롱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없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슬픔과 분노를 안느낄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계속 국민이 늘려 있지만은 절대로 앓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국민을 계속 누르면 국민의 마음은 정부로부터
떠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를 누르고 있는 정부에
대해 항거하여 일어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8월6일 안동교구 기도회)

7. 성명서

(농민회)

이제 인간의 기본적 양심의 권리요, 참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종교활동 마저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상황이 되었다. 그
동안 온갖 형태로 자행되어 오던 종교탄압 행위는 신자와 성
직자들을 폭행 연금하고 교회 집회를 방해하고 교회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운동들을 불법적 폭력으로 탄압해 왔다. 오늘날 인간 정신을 부인하는 이같은 물질만능의 유물론적인 상황속에서 제도악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을 일으켜 세우기위한 종교활동은 이 시대의 필연적이고 시급한 요청이다. 그러므로 왜곡된 산업구조속에서 압박받고 소외당하는 농민의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운동은 바로 그리스도정신의 실천이자 신앙인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데 농촌사회의 현장교회로서 이같은 사명을 다해온 본회활동을 당국은 오히려 불온, 용공성 운운하면서 가혹한 탄압을 가해왔다.

지난해 본회 춘천 연합회 간부와 본부직원 구속, 소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관련한 수십명의 회원들이 불법연행 감금, 각종 교육및 집회 방해, 최근의 전남, 전북회원의 구속 등 그 탄압은 더욱 노골화 되어왔다. 따라서 본회는 이같은 탄압행위는 종교활동의 탄압이자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방해하는 불행한 일임을 명백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본회회원 오원춘 형제를 백주에 납치 폭행하여 울릉도에 유기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으며 이를 항의하는 안동교구와 본회의 요구를 무시한채 오히려 오원춘형제를 재납치 구속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본회 정재돈형제등을 연행 감금하고, 급기야는 백주에 천주교 안동교구청 (교구 본부)을 30여명의 경찰들이 난입하여 짓밟고 교구 사무국장이자 본회 안동연합회 지도신부인 정호경 신부를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소위 법치국가의 경찰에 의해 자행된 천인공로할 이같은 만행은 농민운동의 탄압일 뿐만아니라 교회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며 존재와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고 민중의 생존을 방해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비인간적,

반민중적 행위로 간주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개인적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이 땅에 사회정의 구현을 통해 불행을 발생케하는 근본적 범죄임을 확인한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민중과 이 민족의 구체적 실제인 농민운동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고통받는 민중의 참된 권리를 회복하고 교권 수호를 위해 200년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와 정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피흘리며 죽어간 순교부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一. 당국은 오원춘 사건의 조작극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된 신부와 형제들을 무조건 석방하라.

一. 당국은 교권 침해,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라

一. 농민운동과 모든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979년 8월 6일

한 국 가 톨 릭 농 민 회
한국 가톨릭 농민회 전국지도신부단

8. 오원춘씨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최근 교회내외에 크게 문제 돼 있는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오원춘씨에 관한 일을 두고서,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과 안동 교구에서 파악한 것이 상반되고 있어서 교회내에서도 당혹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음으로 그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그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오원춘씨가 지난 5월 5일 영양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로 부터 포항으로 납치되가서 폭행을 당하고, 그후 울릉도에 2주간동안 강제격리된채 있었다는 안동교구의 조사가 진실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수사 당국이 위의 사실을 허위 날조된 조작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측 조사에 혐의를 씌우고 있음에 대하여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3. 더구나 자기 신도중의 한사람인 오원춘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와 다른 신부들과 신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갖가지 부당한 압력에 대해, 한국교회 사목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주교들은 엄중한 항의를 표하는 바이다.

4. 앞으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처리를 주시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전교회적인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5. 차제에 우리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가톨릭 농민회와 신자사회 일각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가톨릭 노동 청년회가 농민과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옹호와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건전한 단체임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6.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정의롭고 평화스럽게 해결됨으로서 우리 국가 사회의 공통선이 더욱 더 증진되도록 모든 신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1979년 8월 20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9. 성 명 서 (정의 평화 위원회)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 현실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총화와 반대되는 극한점에 와있는 실

정을 절감한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경부와 여당이 첫째 제1야당, 둘째 신·구 그리스도 교회, 세
째 농민 노동자 단체와 거의 비이성적 상태에서 대립, 충돌하
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자유와 민주주의
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국가의 기본 이념을 벗어나 민족적
으로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까 심히 염려되는 바이다.

이에 본 정의평화위원회는 현 시국이 직면한 다음의 난제
들이 인권과 화해의 바탕위에서 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천주교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이사 오원춘 형제는 현
지 교회 당국의 보살핌과 사실 확인의 기회가 차단된 감금속
에서 범죄 혐의가 꾸며졌다. 우리는 이 사건의 가톨릭 농민회
활동에 대한 일련의 박해 사례로 보고 오원춘 형제의 혐의
내용이 경찰 발표와 판이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오원춘 형제
를 비롯 이 사건에 관련되어 연행된 성직자, 신자 전원을 즉
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찰과 수사기관원 30여명이 집단으로 안동교구청에 난
입하여 교구 사목국장 정호경 신부를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난폭하게 연행한 사실, 안동 이외의 지역에서도 가톨릭 농민
회 간부들이 연행 구속된 사실, 가톨릭 노동 청년회 회원들이
각 산업장에서 신자로서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경, 전
주교구 정평위 위원 문정현 신부가 과거 3분 사제 복역자중
유일하게 재 투옥된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한국 천주교회에
제2의 순교시대가 도래하는 위기를 절감한다. 우리는 단호히
교권 회복과 구속된 성직자 신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3. 신·구 그리스도교회의 산업선교가 배후 조정을 했다고
지탄하면서 강제로 해제된 여공들이 실업상태를 구제하고, 폭
행을 가한 경찰관, 시경국장, 내무부 장관을 인책 처벌하고, 여
공들을 배후조정했다고 구속된 3명의 양심적 민주인사들을 석

방하고, 노동부조리를 정부 당국이 솔선 시정하기를 촉구한다.

4.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이른바 통혁당 재건 간첩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이 혹심한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임을 주장하는 바, 고문으로 공산당을 만들어 내는 악폐의 근절을 보이기 위해 이들 피고의 고문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백일하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5. 도시 산업선교회 활동에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강대국에 의한 진식민주의 등 개념은 유물론적 공산 독재를 배격함과 동시에 현대 그리스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전해임을 당국은 알아야 하며, 냉전 시대의 낡은 이데올로기적 고정 관념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둔다. 하물며 진취적 용어 한두마디로 크리스찬을 용공시하는 우리들더이상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6. 이미 누차 촉구된 바와같이 시인 김지하, 문익환 목사, 학생, 노동자, 동아투위 소속 기자들을 비롯 아직도 감옥에 있는 수많은 양심 수인들을 국민 화해와 인권의 차원에서 조속히 석방하기를 추구한다. 특히 기본 인권인 언론자유를 속박하면서, 한편으로 구속하고 한편으로 석방하는 악순환을 연속시키는 임시 비상입법의 장기 적용을 조속히 철폐하기를 촉구한다.

7.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등 지도적 민주 인사들이 상투적으로 자택에 연금되는 반 인권적 조치를 당국이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모든 불행한 사태들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서 민주주의 한국의 장래에 신선한 활로가 열리기를 열망하는 바이다.

1979년 8월 20일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